



2024년 / 12월 2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2월 11일(수) 16시 : 사무국 주간회의
- 12월 14일(토) 16시 : 5차 운영위원회
- 12월 14일(토) 18시 : 2024년 송년회

■ 연구원 소식

- 2024년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송년회 안내

2024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열리는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송년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나눴던 귀한 기운을 다시금 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일시: 2024. 12. 14(토) 18:00~20:00
- 장소: 노랑토랑 연회장(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62 / 063-229-7948)
- 주요일정
 - 개회식
 - 우수 회원 시상
 - 축하공연
 - 도서 나눔을 위한 기부 도서 모집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 바라며 도서나눔에 참여하실 회원께서는 출간 5년 이내의 책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국집의 양복쟁이들 - 1992. 12. 11.

과음 후 깊은 속 쓰림을 달래주는 해장국으로 전주에 콩나물국이 있다면 부산에는 복국이 있다. 1992년 12월 11일 아침, 초원복집이라는 부산에서 나름 유명썩한 복국집에 모여든 8명의 신사들도 그 맛을 익히 알았을 것이다. 다른 손님들과 사뭇 다른 대우를 받았을 그 8명은 부산에서 상당한 감투들을 쓴 사람들이었다. 좌장은 전 법무부장관인 김기춘이었고,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소장이 그들이었다.

그 쟁쟁한 직함들이 단지 해장을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관심은 며칠 뒤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있었다. 기관장들이 모여서 선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겠지만, 그들의 대화는 좀 사정이 달랐다. 주도자는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서 당시 "미스터 법질서"라는 별명을 지녔고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이었다.

미스터 법질서는 "당신들이야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지 뭐..., 우리 검찰에서도 양해할 것이고, 아마 경찰청장도 양해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대의민주주의제를 몸통으로 하고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자가 지방의 행정 책임자와 경찰 총수와 검찰 수장에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라고 떠들어댄 것이다. 심지어 그는 이번에 "(YS가 떨어지면) 다들 영도 다리에서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그에 대한 가장 훌륭한 맞장구는 부산경찰청장 박일룡의 입에서 나왔다. "양해라뇨. 제가 더 떠듭니다." 관권 개입을 '양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독려'하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복집의 은밀한 내실에서 그들은 흥금을 터놓고 추악한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그들의 이 회동 내용은 당시 대통령에 출마하여 여당을 위협하던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이 이끄는 통일국민당 당원들이 설치한 도청기가 듣고 있었다. 그 적나라한 대화는 녹취록이 되어 세상에 폭탄처럼 투하됐다. 선거 자체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또한 '초원복집'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집으로 부상하게 된다.

한 나라의 전직 법무부 장관이 지방의 기관장들에게 선거 개입을 사주하고 기관장들은 그에 동조하는 내용의 녹취록의 파도는 너울처럼 대한민국을 덮쳤다. 초원 복국집 내실에서 벌어진 고위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모의는 엄청난 범죄적 사실이며 공화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지만 언론은 주요 프레임을 '도청'으로 몰아갔고 그 내용상 비교가 안 되는 관권선거의 음모자들은 어이없게도 도청의 '피해자인 양' 책임 추궁을 모면한다.

이날 이후 십여 년이 지난 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이유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이 됐던 것이 바로 초원복국집의 좌장 김기춘이었다. 그 기억의 편린이 사라질만 할 때 그는 일흔 넷의 나이로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였다.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정권을 쥐락펴락한 그는 대통령에게 "정말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이라는 찬사를 듣는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이력을 지닌 이의 삶은 온당한 법의 처벌을 받고 은인자중하며 참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노태우가 죽자 "민주정부 이행과도기에 훌륭한 역할을 했다"는 말을 내뱉었고 그의 사위인 안상훈은 윤석열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가 2024년 국회의원이 되었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단언컨대 단죄와 기억이라는 반석이 바로 자리해야 익어갈 것이다. 하나회 숙청을 막고 정권을 찬탈하고자했던 12.12 군사반란이 45년 뒤 이른바 총암파라는 이들이 일으킨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의 친위 쿠데타로 재연당하는 나라는 아직 미숙한 민주주의에 머무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